□■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3. 3. 19

「마가복음 마흔여덟 번째 말씀」

오늘만큼만 살라

Live only for today

마가복음 13장 28-37절

---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

1.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두 가지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없다(32, 33, 35)’ 그리고 ‘깨어 있으라(33, 34, 35, 37)’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각각의 말씀이 왜 강조하셨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이야기해봅시다.

2. 여러분은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을 나눠봅시다. 만약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디에 간직하고 있나요? 오늘 ‘은혜의 3가지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은 어떠한지 서로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기록해놓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나눠봅시다.
   -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
   - 기억하는 은혜
   - 기록해놓은 은혜

4. 진정한 깨어있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5. 일상의 영성이란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날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만큼만 (제대로) 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만큼’ 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봅시다.

6. 우리들 중 두려움과 걱정도 미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봅시다.